

70년대 간호사업의 평가 및 80년대의 과제

대한간호협회

김 순 자
(본회 제1부회장
겸 기획위원장)

본회는 1923년 소수의 졸업간호원을 구성원으로 한 조선졸업간호부회로 출범하였다. 창설후 20여년만에 조국의 해방을 맞아 대한간호협회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국제단체에 가입된 최초의 여성단체가 되었다. 1962년 해방후 근 20년만에 의료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인하여 조직과 체제 및 운영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였고 다시 20년, 즉1983년에 회갑을 맞이하게 된다. 창설 당시부터 본회의 변함없는 기본목적은 ① 회원의 자질을 향상하는 것과 ② 업무수행상의 편의와 사회, 경제적 권익을 도모하는 것 및 ③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간호원을 대변하는 것이며 그 궁극의 목적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간호와 건강관호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본회를 이끌어 온 선배, 임직원들과 회원들의 업적과 노고를 되새기면서 1980년대의 본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회는 1979년도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10개년 계획을 확정하였고 1980년도에 제1차 개정을 거쳐 확정된 10개년 계획이었다.

본인이 제시하는 10개영역의 과제는 본회 10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하였고 기타 모든 자료는 1970년~1979년까지의 대의원총회 보고서에 수록된 것임을 밝힌다.

조직의 강화 및 체제의 개선

본회 회원은 1949년도에 총 면허간호원의 74%에 이르렀으나 점차 가입율이 떨어져 1961년에는 44%에 불과하였다. 1962년 의료법의 개정으로 95%가 회에 가입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50%를 밑도는 가입율을 나타냈다. (1970년 : 37%, 1979년 : 43%, 타년도에도 대동소이함) 1980년대의 과제는 취업을 하고 있는 간호원은 물론, 해외거주자, 미취업자, 특수분야 취업자를 망라한 전 면허간호원의 회원화 운동을 통하여 가입율을 높이는 일이라 하겠다.

현 체제는 12개 행정지역별 지부와 해외지역별 간호원회 그리고 2개 영역별 간호원회(임상간호원회, 보건간호원회)가 산하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1970년도에 대한간호협회의 산파역으로 대한간호학회가 본회 산하단체로서 출범하여 1974년에 독립하였다. 같은 해에 해외지역별로 간호원회를 두게 되어 70년대에 미국, 서독, 캐나다지역별 간호원회 속속 조직되었다. 1972년도에 보건간호원회, 1975년도에는 임상간호원회가 본회의 산하단체가 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양호교사회와 마취간호원회가 발족되었다. 또한 12개 지부와 2개 산하단체 중 경북지부는 본회 기성기금 8,000,000원의 대출을 받아1980년 3월

회관을 착공하였고 서울특별시지부는 퇴관건립을 위한 모금을 착수하였다. 본회는 지부와 산하단체의 재정면, 운영관리, 조직면 및 활동면의 육성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또한 관심영역이나 취업하고 있는 영역별로 간호단체가 조직되는 경향으로 미루어 이들의 조직과 운영의 전반적인 면에 지지와 격려를 통한 육성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이들을 연합체로 통합하여 범간호기구, 가칭 “간호단체연합회”로의 제제개선을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행정지역별 지부와 영역별 간호단체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이를 위한 회원 각자의 조직과 체제에 대한 관심도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회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의사를 집약하여 바람직한 체제를 강구하여야 한다.

간호사업수준의 향상

극소수의 조산소 개업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회원들은 고용상태로 취업하고 있다.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다. 가장 많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는 병원(78.4%)과 보건의소와 보건의소(10.6%), 양호교사와 교원교사(7.6%), 산업장(0.74%) 등이다. 이러한 분야에 따라 간호원의 역할은 약간의 차이가 있게 된다. 분야별 간호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으나 외부적 요인(사회경제적 처우)과 내부적 요인(간호에 대한 신념, 지식, 기술)으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간호원의 사회경제적 처우개선을 위한 과제로써,

① 최저임금 및 분야별(현장별), 수준별(직급별) 적정임금을 책정하는 일과 휴일, 휴가, 근무시간, 제수당 등 고용조건을 확정하는 일이며 이를 제도화하여 실시하도록 관계당국과 관계기관에 촉구한다.

② 분야별, 계층별로 간호업무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일과 각급 조직체제를 확립하고 주기

적 추후교육을 통하여 회원들의 수준(직위)에 따라 잠재력개발에 주력을 둔다. 특히 본회는 각급 간호지도자 과정을 직접 운영하여 분야별, 계층별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③ 참간호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회원들이 간호사업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갖도록 하고 간호윤리 규약을 준수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간호원상을 부각시킨다.

④ 간호행위의 법적인 보장과 합리적인 면허 및 자격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간호단체법 초안을 완성한다. 간호단체법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간호교육의 제도개선

간호인력의 수요에 대한 공급계획은 각급 간호요원의 교육과 훈련계획이다. 간호인력의 수요는 각종 간호업무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결정된다. 간호역할과 기능, 즉 간호업무의 내용은 사회의 간호요구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간호교육의 제도는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03년 첫 간호교육기관이 시작되어 1909년 2명의 졸업간호원을 배출한 이래 70여년간 35,000여명의 간호원을 배출하였다. 해방후 1947년 간호교육기관의 입학수준(중졸)과 교육년한(3년)을 고등간호기술학교(고등학교수준)로 통일할 때까지만 해도 다양한 차가 있었다. 1955년에 처음으로 고등교육기관내에 학사과정이 생겼으며 1962년에는 고등학교졸업이상인 사람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간호학교(각종학교)로 고등간호기술학교를 승격, 정비하였다. 몇몇고등간호기술학교는 1970년대까지 존속하였으나 1977년 전문학교로 수준통일을 보았고, 1979년부터 대학입학에비교사 합격자를 지원자격으로하는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간호학수학년한은 최저 3년을 해방후 지금까지 교수해왔다. 1980년도 현재 전국 52개 간호교육기관 중 14개교는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행정지역별로는 강원, 경기, 충북, 전북, 제주에 아직 학사학위과정 없이 있다.

1967년에 입안, 시작된 간호보조원 훈련을 통하여 지난 10여년간 45,000여명의 간호보조원이 양성되었다. 이는 70여년간 배출된 간호원 수의 130%에 해당하는 수효이다.

건강사업전달제도가 1차전강접근방법으로 변화하는 경향으로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주민의 건강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간호요원에게 사회가 요구하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교육은 미래에 살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인력의 수급에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간호교육행정자와 간호인력수급정책 입안자들이 우리나라 간호인력의 수준을 전문적 간호원, 기술적 간호원 및 기능적 간호원으로 다원화할 것인가 또는 인력관리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원화 내지는 이원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단안을 내리도록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며 이러한 결단에 참고될 각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1980년대의 과제는 각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허심탄회하게 교육제도문제를 논의하여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합리적 제도를 강구하는 일이다.

장학기금 및 간호연구기금의 확보와 효율적 운영

1973년 제40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당 50원씩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이를 간호연구기금으로 개칭할 때까지는 장학기금은 미미하였다. (1970년 : 224,000원, 1971년 : 865,500원) 1973년 9월 13일 간호연구기금위원회가 발족되었고 1975년 5월 20일 정기이사회에서 간호연구기금관리규약이 인준되었고 1975년에는 기금이 2,920,000원에 이르렀다. 1977년부터 간우사의 이죽자회원이 년 100만원을 계속 장학기금으로 간호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1977년 재미간호원과의 합동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재미동포 김선애선배가 100만원을 본회 전임직원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

금으로 기탁하였으며 1978년에 작고하신 고 이영복증경회장 추모사업회 기금이자 증 일부가 간호행정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 지급된다.

1970년대는 협회 내부적으로 뜻있는 회원들에 의해 장학기금이 모여졌을 뿐인 데 반해 1980년대에는 간호교육과 간호학발전의 국가적인 차원의 관심도를 높이고 간호교육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간호사회 외부로 부터 장학기금과 간호연구기금 모금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서는 가칭 "국제간호재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이다. 이러한 기금은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과 각 분야의 간호인력을 기르는 데 기여하도록 효율적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보체제수립(간호정보센터의 설립)

1962년부터 의료인의 정기적인 일제신고에 따라 간호원의 동태가 보다 확실하게 파악되기 시작했으나 회원의 동태 외에는 정확한 간호관계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1970년대 초부터 본회 교육부가 조사하기 시작한 실태조사를 통해 간호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현대는 정보의 시대이다.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입안하거나 시행할 때 정확한 자료가 없이 이루어지면 이는 타당하지 않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① 간호요원의 동태(census) ② 간호학 및 간호관계문헌 ③ 간호교육현황 ④ 간호사업실태 및 ⑤ 간호와 관련있는 사회, 경제, 문화에 관한 국내의 정보를 제공하는 간호정보센터의 수립이 과제이다.

홍보체제의 확립 및 신문사 운영의 효율화

대한간호에 의존해 오던 홍보체제에서 1964년에 news letter를 통해 간호계 단편적 뉴스를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시설과 협회의 기존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이러한 사업도 1년간 겨우 끌어 왔을 뿐이었다. 1974년에 의학

신보 1면 간호판을 확보하여 의존적 형태의 홍보를 해 왔으나 의학신보사측이 본회의 이념과 방침에 항상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는 못했다. 1977년도에 평생회비 중 30,000,000원을 전출하여 주 1회 간협신보를 펴내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도부터 본회 경상회계에서 22,000,000원(78년도 : 7,000,000원, 79년도 : 15,000,000원)을 전출하였고 1980년도에 25,000,000원을 추가, 전출하기로 결의되었다. 따라서 본회는 많은 출자를 하기에 이르렀으나 간협신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대 회원홍보는 물론이며 회원들의 의사를 집약하고 대외적으로 간호원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도 대의원총회에서 기관지 기금(대한간호 및 간협신보)으로 1억원 모금을 결의하였으며 1년간 목표액의 24%(24,015,000원)을 달성하였다. 1980년도에는 목표액의 모금을 완료하여야 한다. 1980년대의 과제는 경상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운영하는 형태에서 탈피하여 자금자족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주 2회 발간하여 신속한 정보매체로 전문지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다.

출판사운영의 효율화

본회는 창설 당시부터 교과서출판이 주요사업으로 채택되었고 동란후 1953년 UNKRA와 AKF(한미재단)가 출연한 간호학교과서 출판기금에 의해 교과서 출판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25년부터 “조선간호부회보”가 년 4회 발간되었으며 1953년도 이후 “대한간호”로 현재까지 년 4~6회 발간되고 있다.

1970년~74년까지 본회는 7종의 간호학 및 보조과학 교과서와 참고서 1종 및 종합간호학 문예지를 발간하였고 1975년부터 간호학 문헌의 색인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으며 1976년도에는 간호학학습지도서(문예지)를 5개 영역별로 발간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교과서와 문예지 외에 참고도서 6종을, 1978년도에는 간호학논문요약집을 발간하고 1979년도에는 외국 유명 간

호잡지의 새로운 간호지식 및 정보를 각 영역별로 선택, 번역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문고”를 출간하였다. 본회는 출판사 사업으로 간호학 및 보조과학 교과서를 출판하므로써 간호학 및 보조과학의 학습내용을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고 교과서 외에 각종 참고서적을 출간하여 폭넓고 깊이있는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는 교과서와 참고서를 계획하여 출판하는 효율적인 체계를 모색하는 것이 과제이다.

전 회원에 배부되어 온 “대한간호”의 격월간출판을 위해 1971년 : 3,235,432원, 1978년 : 13,000,000원, 1979년에는 11,000,000원(5회 발간)의 경비가 소요되어 1980년도 총회에서 5,000부만 년 5회 출간하기로 결의하고 8,000,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많은 회원들이 “대한간호”를 읽지 않고 있다는 판단아래 취해졌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대한간호”의 기관지로서의 존속과 배부를 원하면서도 정상적인 발간을 위한 방안(실 제작비를 회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는 많은 회원이 반대를 하여 본회 재정형편으로서는 부득이 한 고육지책을 쓰게 된 것이다. “읽히는” 잡지로 키우기 위해서도 편집에 대한 본회의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개선이 따라야 했지만 회원 여러분의 보다 격의 없는 협조와 참여가 바로 절경이라 믿는다.

비록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 하더라도 회원 여러분의 참여도에 따라 크게 해신되고 발전될 수 있는 소지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상부수, 정상유통수의 제작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

회원을 위한 후생 및 복지사업

회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원로회원을 위한 노후대책이고 둘째는 기타 회원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며 셋째로 불우회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들 수 있다.

1970년도에 경노회비 10,000원(1971년 : 45,

828, 72년 : 29, 928, 74년 : 14, 928)을 책정하여 원로회원 대우를 위한 경비로 하여 섭외부가 활동하였다. 1975년부터 경노회비는 섭외홍보부 사업계획속에 포함되었다가 1977년도부터는 불우이웃돕기사업에 포함되었다. 원로회원에 대한 노후대책은 불우이웃돕기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간호사업에 평생을 바친 원로회원들이 퇴임한 후에도 보람차고 뜻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지부와 본회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한다.

본회가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계획하는 추후교육과 훈련과정 중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와 해외회원 및 국제간호협의회 회원국회원들이 우리나라를 여행할 경우,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실비의 숙박시설, 회의장, 강의실, 도서실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는 경기도 용인의 "간호원의 집" 또는 본회가 신청중인 종합의료인단체센터와 연관하여 계획될 수도 있다.

경상회계에서 활어하는 소규모의 재정으로는 불우회원의 복지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하여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사회가 점차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각종 복지에 대하여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간호원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각종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출전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1980년대의 주요과제이다.

“간호원의 집”건립

1955년 대구에서 개최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본회 회관을 건립하기로 결의하고 기성금 각출을 시작하여 1964년도에 쌍림동 88-7번지에 소재하는 현 회관자리의 2층 양옥을 사서 1965년 입주하였고 1970년 현 회관을 완공 입주하였다. 1970년말 평생회비 중 재산 3분법에 따라 용인에 임야 26,400평(8정 8단보)을 구입하였다. 1973년 10월 17일 가칭 “간호원의 집”건립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동년 11월 21일 33명의 위원을 인준하고 1974년 2월 22일 정기이사회가 규

약을 인준하였다. 그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립계획은 답보상태에 있어 1980년대의 과제로 남아 있다.

국제관계의 강화

본회는 1920년대에 이미 국제간호협의회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국제관계에 열성적으로 관여했으나 일국가 일회원단체원칙에 따라 일본의 압제하였으므로 참관인의 자격으로만 참여하였고 1949년에 ICN에 정회원국이 되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ICN총회에 정대표를 파견하였고, 1965년에는 아시아 서태평양지역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회원국에 서한을 냈고 몇몇 회원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다. 1977년 동경총회에는 대거 30여명이 참석하였고 본회 사상 처음으로 김도임회장(당시 부회장)이 주제강연을 맡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선자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그해 김도임 現회장은 서태평양지역이사로 일본이 추천하고 본회가 재천했으나 자국협회장을 오랜기간 역임하여 ICN총회와 CNR(대표자회의)에 수차례 참석한 경력이 있는 필리핀후보가 이사로 당선되었다. 같은 해 본회추천으로 ICN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PSC(Professional Service Committee: 전문사업위원회)위원으로 대한간호학회장 하영수박사가 피선되어 ICN의 실무임원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제사회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거국적인 지지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보건간호원회

류 순 한
(보건간호원회 회장)

서 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1945년 이후부터